

## “승리의 기운 모아 더 큰 투쟁 조직한다”

### 경남지부 파업 결의대회 열어...STX조선 노사정 협약·S&T중공업 인소싱 철회 합의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7월 23일 확대간부 두 시간 파업을 벌이고, 불법 청산과 해산 철회 투쟁 중인 한국산연 앞에 모였다.

노조 경남지부 800여 명의 확대간부들은 지부가 개최한 ‘구조조정 저지, 생존권 사수, 한국산연 폐업철회 경남지부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대회사에서 “갈 길이 멀지만 STX조선의 노사정 협약과 S&T중공업의 인소싱 철회는 단결하고 투쟁하는 경남지부 동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2단계 투쟁 준비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

홍지욱 지부장은 “이 여세를 몰아갈 것”이라며 “한국산연 문제와 두산모트롤 투쟁도 어깨 걸고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경남지부는 불법 휴업에 투쟁 중인 두산중공업과 해외매각 반대 투쟁을 이어가는 두산모트롤, 불법 청산과 해산에 맞선 한국산연, 국면을 전환했지만 매각투쟁을 준비 중인 STX조선조합원들과 본격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더불어 임금 삭감 요구와 복지축소, 휴업 등에 고



통받고 있는 사천항공산단 동지들이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 “선택과 집중, 2단계 투쟁 준비 기틀 마련”

김용화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전국 순회투쟁을 해보니 자동차 부품사 동지들은 대량학살의 고통을 받고 있고, 작은 사업장은 복수노조로 노동 3권의 제약, 외투사업장들은 자본 철수로 휴업과 폐업을 반복되고 있다”라고 전국 상황을 전했다.

김용화 수석은 “외투 자본의 먹튀는 정부가 나서서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라며 “8월이 오면 한국계 이츠와 한국산연, 르노삼성 등 외투 자본을 상대로 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오해진 한국산연 지회장은 투쟁사에서 “한국산연에 민주노조를 세운

뒤 47년 동안 일본 산켄전기 본사는 끊임없이 탄압을 자행해 왔다. 이번 해산과 청산결정도 민주노조를 없애겠다는 자본의 의지”라고 지적했다.

오해진 지회장은 “한국산연지회는 경남 동지들의 힘으로 원직 복직이라는 승리를 만들어 낸 경험이 있

고, 동지들의 굳건한 연대와 지지가 있다면 이번 투쟁 역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자본 매각반대 투쟁을 진행 중인 김성완 두산모트롤지회장이 투쟁 결의를 높였다. 김성완 지회장은 “중국 자본 XCMG는 유압기기의 기술을 훔쳐 먹튀 하고, 중국으로 공장을 빼가려고 두산모트롤을 노리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김성완 지회장은 “국내 펀드 두 곳과 XCMG가 입찰에 참여했다. 지회는 두산모트롤이 중국 자본에 매각된다면 여름 휴가를 중단하고 실사를 막아낼 것”이라 결의했다.

노조 경남지부 확대간부 동지들은 이날 세차게 내린 빗속에서도 지부 파업대회를 사수했으며, 뒤이어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경남도청에서 연 경남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연대했다.

# 투기자본 먹튀에 표적 해고까지, 대구 노동자 열 받았다

한국계이츠·AVO카본코리아 정리해고 분쇄 결의대회...부산양산·울산·대전충북지부도 파업·총력투쟁

한국계이츠가 ‘공장 폐쇄로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된 노동자들을 존중하는 자세’로 희망퇴직을 자행했다.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희망 퇴직금이나 청산위로금 등 어떠한 돈도 받을 수 없다는 협박을 덧붙였다.



AVO카본코리아는 지난 6월 23일 코로나 19로 경영이 어렵다며, 열세 명의 노동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사측은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하지 않았고, 해고 대상자는 모두 금속노조 조합원들이다. 복수노조 사업장인 노조 AVO카본코리아지회는 8년 만인 올해 2월 다수 노조가 됐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금속노조와 함께 7월 22일 대구시 현대백화점 앞에서 ‘한국계이츠 공장 폐업 철회, AVO카본코리아 정리해고 분쇄를 위한 대구지역 노동자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줄기차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 금속노조와 대구 노동자들은 대구광역시청까지 행진하며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대회사에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갈 길은 없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이름으로 정리해고를 막아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투쟁하지 않으면 정리해고 번진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한국계이츠와 AVO카본코리아 정리해고를 막지 못하면, 대구의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만만하게 보고 구조조정을 더 거세게 밀어붙일 것이다. 그래서 이 투쟁은 단위 사업장의 싸움을 넘어 대구와 금속노조 전체의 싸움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채봉석 노조 한국계이츠지회장은 투쟁사에서 “블랙스톤 투기자본은 31년 동안 고용을 유지했으니 감사하라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만만하고 보고 대통령이 와도 안 된다고 한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니 투기자본이 마음대로 노동자를 유린하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채봉석 지회장은 “남은 조합원 스물일곱 명은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희망퇴직을 거부하고 흔들리지 않고 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투기자본의 먹튀를 해결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박주현 노조 AVO카본코리아지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사측은 금속노조가 교섭권을 쟁취해 교섭을 요구하자 느닷없이 정리해고를 들고나

왔다. 지난 10년 동안 후자를 낸 기업이 무슨 정리해고인가. 코로나 핑계로 민주노조를 없애려는 목적이 다”라고 비판했다.

박주현 지회장은 “노동자가 단결하지 않으면 자본은 언제든 민주노조를 공격한다. 지회 조합원들은 정리해고에 맞서 싸워서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의했다.

대구 도심에 행진을 벌이고 연 대구광역시청 앞 마무리 집회에서 윤종화 노조 대구지부장은 “단호한 연대와 투쟁으로 구조조정을 분쇄하겠다. 대구지부가 앞장서겠다”라고 결의를 높였다.

한편, 이날 노조 부산양산지부는 부산시청 광장에서 ‘대우버스 울산 공장 폐쇄 철회, 베트남 반대, 생존권 사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까지 행진을 벌였다.

노조 울산지부는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정문 앞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불공정거래 박살, 영실·삼정 고용안정 쟁취, 현대제철 민주노조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이날 네 시간 파업을 벌이고 한온시스템 대전 공장 앞에서 ‘재벌체제 청산, 모든 해고와 구조조정 반대, 임금 삭감·동결 반대, 자본의 경제 위기 노동자 책임 전가 중단, 생존권 사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